## 광주매일신문



제9055호 대표전화(062) 650 - 2000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음력 10월 5일)

## '동부권 소외론' 충돌…전남지사 선거전 조기 점화

유력 후보군 주철현·신정훈 SNS 공방

전남지사 유력 후보군인 더불어민주당 주철 현 국회의원(여수갑)과 신정훈 국회의원(나주 ·화순) 사이의 신경전이 'SNS 설전'으로 비화하며 도지사 선거전이 조기에 점화되는 양상이다.

전남 동부권 소외 문제를 둘러싼 두 의원의 논쟁은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지방선거 당 내 후보 경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센 '기 싸 움'으로 번지고 있다.

포문은 신 의원이 먼저 열었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이 최근 제기한 '동부권 소외론'을 "심각한 분열론이자 교묘한 갈라치기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앞서 주 의원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도정이 서부권에 편중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주 의원 스스로 전남 경제 기반이 동부권(석유화 학·제철)에 있다고 말하면서 소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흑백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동부는 산업 위기, 서부는 기반 약화, 광주 근교는 인구 감소 등 전남 전체가 위기인 상황"이라며 "이를 두고 동부는 위기이고 서부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내년 전남지사 선거는 178만 도 민이 함께 소멸 위기를 막는 통합 잔치가 돼야 한다"며 '동부권 소외론' 대신 '전남 통합발전 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분열을 정치 수단으 로 삼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신 의원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전남 동부권 소외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주의원은 반박의 근거로 최근 전남도당이 실시한 '전남 균형발전 현황과 미래 비전 연구' (20 25)를 제시했다. 그는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권

## Today

市군공항 이전 1조지원금 마련 방안은? 3면

광주도심일제전쟁유적'조명'서둘러야 6면

이준영12억···최형우·양현종·조상우는? 16면

辛 "통합 저해 이분법적 선동 멈춰야" 朱 "동부권 박탈감 객관적 수치 확인" 지지기반결집·프레임 선점 목적 분석 확전시 동·서부 대결구도 경계 목소리

주민들의 소외 인식은 도청 이전 이후 구조적으로 강화됐으며, 정책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 체감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동부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객관적 수치와 도민들이 느끼는 현실을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더 키우는 비겁한 침묵"이라고 신 의원을 겨냥했다.

특히 주 의원은 "한전 본사 이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으로 혜택을 입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 면 동부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더 귀를 기 울여야 한다"며 나주를 지역구로 둔 신 의원을 직격했다.

주 의원은 "진정한 '하나의 전남'은 누적된 불균 형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기능하다"며 구조적 불 균형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전남지사 선거가 자칫 동부권 vs 서부권 대결 구도로 고 착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남지사의 선거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사실 상 본선이라는 점에서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닌, 동·서부권 간 프레임 전쟁으로 확 전되면 '내부 총질'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만 야 기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인구와 산업 시설이 집중된 여수·순천·광양의 '동부권' 민심과 도청 및 혁신 도시가 위치한 서남부권 및 내륙을 아우르는 '서부 권' 민심의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는 모양새"라며 "차기 전남지사 경선의 핵심 쟁점이 '전남 동·서부 간발전 격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놓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충돌에 대해 '지지 기반 결집'과 '프레임 선점'을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이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3선을 노리는 김 영록 전남지사나 이개호·서삼석 의원 등이 동 부권 소외 논쟁에 뛰어들 경우 6개월여 남은 전 남지사 선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 다. /김진수·김재정기자



**갈대밭거닐며 '만추의 여유'** 가을 계절이 끝자락으로 향하는 지난 22일 주말을 맞아 순천만 갈대군락지를 찾은 관람객들이 갈대밭 사이를 거닐며 만추(晚秋)의 여유 를 즐기고 있다. 순천만 습지 갈대밭은 국내 최대 규모로 총면적은 약 160만평(530만㎡)에 달한다. /김애리 기자

## 김영록 지사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 나주로"

발표평가서 직접 PPT 발표 유치 의지 부지 안전·정주·수용성 3박자완비 강조 金지사 "나주 여건 최고···진인사대천명"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 시설' 유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발 표 평가 발표자로 나서 부지 안전성, 확장성, 산 ·학·연 역량, 정주여건, 주민 수용성 등 모든 면 에 강점을 갖춘 나주 유치 당위성과 의지를 강 력 피력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인공태양 연구시설부지 공모 발표평가에서 '세계를 밝히는 인공태양, 전남이 꿈꾸고, 나주에 품다'는 슬로건으로 약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나주와 전북 군산, 경북 경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날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경북에서는 송호준 경주

시 부시장이 각각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제안한 나주 후보지는 화강암 기반의 평탄하고 안정적 부지로서 지난 50년간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력이 전무해 국가대형 연구시설 최적지로 꼽힌다.

정부가 요구한 기본 부지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 제공이 가능하고 연접한 에너지 국가산단 등 주변으로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인근 실거주자의 100% 동의를 얻었고 12만 나주시민 전체 지지 서명을 확보하는 등 전국 최고의 주민 수용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조기 건설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 국에너지공대는 핵융합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 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를 구축 중으로 향후 핵융합 실증·핵심 소재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전망이다. 한전 등 700여개 에너지 기업이 집적화된 연구·산업 생태계 역시 타 지자체와 비교 불가의 우위에 서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진정한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핵융합"이라며 "정부가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핵융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나주에 유치되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또 "2020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모 당시 정부가 전남의 유치 노력과 진정성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 때문에 후속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전남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정부의약속이행을촉구했다.

김 지사는 발표평가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건으로 보면 나주시가 최고"라며 "진인 사대천명! 기다리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는 한국연 구재단 주관으로 평가단 심사를 거쳐 11월 말께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양시원기자

